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에 의원

“아카데미하우스 내 시립도서관 유치 나서야”

유인에 부의장(수유2,3동 번1,2동)은 지난 29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옛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내 다목적 시립도서관 건립 유치’와 관련된 발언을 진행했다.

유 부의장은 “지난 1966년 개관한 아카데미하우스는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역사를 함께한 시설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선도자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자 진보 민주인사들의 요람이었다”며 “현재 아카데미하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유한 시설로 대상부지를 외부업체에 임대해 개발운영을 맡겼으나 리모델링 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비 및 임대료가 연체, 재개치 못하고 법적분쟁에 들어가 최근 유치권 행사의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의장은 “아카데미하우스는 민주화



운동을 위한 땅과 노력이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아카데미하우스가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이러한 곳을 강북구에서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처

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부의장은 “구는 강북구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둘레길, 순례길과 연계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제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지역에 마땅한 강북구도서관이 없어 낡고 붐비는 도봉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지역간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 후 그곳을 리모델링해 다목적 시립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아카데미하우스에 다목적 시립도서관을 유치하자”

유인에 의원

(자유한국당/수유2·3동, 번1·2동)

유인에 의원은 10월 29일 열린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내 다목적 시립 도서관 건립 유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아카데미하우스는 소외된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을 대화모임 형식으로 교육시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선도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자 진보적 민주인사들의 요람이었지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부지를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개



▲ 유인에 의원.

발운영을 맡겼으나, 리모델링 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비 및 임대료가 연체되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법적분쟁에 들어가 최근 유치권 행사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위한 땅과 노력이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인 아카데미

하우스가 사유재산이지만 강북구에서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며, 서울시에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 후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립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인에 의원은 다목적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서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둘레길, 순례길과 연계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제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지역에 변변찮은 강북구의 도서관이 없어 낡고 붐비는 도봉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지역간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유인에 강북구의회 부의장 5분 발언〉

아카데미하우스 내 다목적 시립 도서관 건립 유치 해야



▲ 유인에 강북구의회 부의장

옛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내 다목적 시립 도서관 건립 유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966년 개관한 아카데미하우스는 경동교회의 강원용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역사를 함께한 시설로써, 1960~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암울하고 잿빛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외된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을 대화모임 형식으로 교육시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선도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자 진보적 민주인사들의 요람이었다.

현재 아카데미 하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유한 시설로써, 2014년까지 총회 본부로 사용해 오다 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본부를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이전 후 대상부지를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개발운영을 맡겼으나, 리모델링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및 임대료가 연체되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법적분쟁에 들어가 최근 유치권 행사의 어려움에 있다.

구청장은 수유리 일대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든다는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아카데미 하우스는 민주화운동을 위한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다. 비록, 아카데미하우스가 사유재산이지만 이러한 곳을 강북구에서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의원은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돌레길, 순례길과 연계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제성과 자금심을 고취하고,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지역에 변변찮은 강북구의 도서관이 없어 낡고 불비는 도봉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역간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 후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립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 5분 자유발언

아카데미하우스 내 시립도서관 유치



유인에 의원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카데미하우스 내 시립 도서관 유치’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인에 의원은 “1966년 개관한 아카데미하

우스는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유한 시설로써, 2014년까지 총회 본부로 사용해 오다 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본부를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이

전 후 대상부지를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개발운영을 맡겼으나, 리모델링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및 임대료가 연체되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법적분쟁에 들어가 최근 유치권 행사의 어려움에 있다.”고 설명하고 “비록, 아카데미하우스가 사유재산이지만 서울시에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 후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립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구청에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을 요구했다.